



DIABLO®

VESSEL OF HATRED™

아카라트가
나한투에 왔을 때

단편 소설
MATTHEW J. KIRBY

작가

MATTHEW J. KIRBY

일러스트

RICHARD ANDERSON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NICK CHILAN, GABRIEL LING, DAVID LOMELI,
ELENI RIVERA-COLON, DAVID RODRIGUEZ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Special Thanks

ROD FERGUSSON

번역

최유현, 이재권



Blizzard.com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카라트가 나한투에 왔을 때

여기 아카라트와 늑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육신과 혼령의 세계를 넘나드는 자들은 그 이야기의 진리를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다. 이는 우리의 장로들에게 받은 것이며, 장로들은 자신들의 장로들에게 받았으며, 그 장로들 또한 그들의 장로들에게 받았으니, 최초의 장로들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아카라트의 헌신자들에게 받았다. 이것은 나한투의 혼령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며, 밀림의 움바루에서든, 평원의 테간제에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이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모두의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이미 잊어,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려는 오만과 의지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들어라, 나한투의 아이들이여. 들어라, 성역의 모든 후예들이여. 아카라트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라. 들어라,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를 빛의 구도자라 칭하나, 실상은 아카라트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아. 들어라, 빛의 길을 닦고는 아카라트의 이름을 빌려 통행료를 걷으려는 자들아. 진리를 들어라, 바람직하지 못한 증복들이여, 그리하지 않으면 증오가 너희를 삼켜 버릴지니.

아카라트가 나한투에 왔을 때, 금의를 입고 온 것이 아니었다. 어떤 가마도 쿠라스트의 대로를 지나 그를 나르지 않았고, 어떤 찬송도 경배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어떤 예언도 그의 도래를 예견하지 않았다. 예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나한투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란 것이 드물었으니. 역병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무성한

열대우림과 비옥한 들판은 짓밟혔다. 짐승은 거칠어졌고 걸신들려 날뛰었다. 뿌리를 내린 타락은 궤양처럼 퍼졌다. 재앙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땅은 부패해 독성을 띠었다. 역병은 가장 온순한 짐승조차 피를 갈구하도록 뒤틀었다. 맹그로브를 뒤뜰고, 평원을 그을렸다. 저주가 나한투를 집어삼켜, 사람들에게 파멸을 안기고 절망 속에 굶주리도록 한 것 같았다.

많은 움바루족은 닥친 파멸을 피해 달아나 기묘하고 머나먼 땅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아카라트의 모친도 난민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렇기에 후일 아카라트가 시안사이에서 그곳 출신 아버지 아래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아카라트가 나한투에 도착한 것은 어찌 보면 고향에 돌아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의 곁에는 이세베테가 있었다. 희망과 관용으로 가득한 이가. 지금은 아카라트의 첫 헌신자로 알려져 있다. 아카라트와 이세베테는 서로 오랜 벗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오누이처럼 서로를 사랑했다. 둘의 유대는 참으로 깊었으니, 아카라트가 시안사이를 떠났을 때 이세베테도 함께 떠났을 정도였다. 아카라트가 케지스탄을 유랑할 때 이세베테는 그의 충직한 동료로 남았다. 아카라트와 이세베테와 함께 다른 세 명이 나한투로 왔다. 지도제작자 아다빈, 숨씨 좋은 이스타벨라, 굳은 의지의 귤라였다.

이 다섯은 함께 거센 아르겐택강을 건넜다. 케지스탄의 사막이 나한투의 영킨 덩굴에 자리를 내주는 곳이었다. 먼 해안에 가까워지자, 빈약한 뱃전 아래에서 물은 불쾌한 악취를 풍기며 느릿느릿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그림자와 피로 어두워졌다. 아카라트는 작은 옥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시안사이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소지품이었다. 옥의 광택은 깊어지는 밀림과 지는 태양 아래서 바래는 듯했고, 아카라트는 조각상을 품에 가까이 쥐었다.

“주인님?” 아다빈이 말했다.

아카라트는 참음성 있게 말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아다빈, 나는 네 주인이 아니다. 우리 둘 모두 빛의 구도자가 아니더냐.”

아다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님.”

아카라트는 한숨을 내쉬고 헌신자를 바라보았다. “물어보아라.”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탄 다른 이들은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침묵했다. 이스타벨라도

조각상에 대해 궁금해하던 차였다. 길라도 마찬가지로였고. 그러나 둘 모두 감히 물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세베테는 아다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으나, 아카라트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기다렸다.

“우리 어머니 물건이었네.” 마침내 아카라트가 말했다. “시안사이를 떠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 언젠가 어머니의 일부를 선조의 땅으로 가져갈 날이 오길 바라며.” 아카라트는 늘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곳에 오고 나니, 어머니께서 이 참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군.”

“이 밀림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타벨라가 말했다. “칼데움의 시장에서 말이 돌더군요.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왔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바보들의 미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이세베테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미신을 믿으면 병에 걸린 것을 병자 탓을 한다고 하셨지. 병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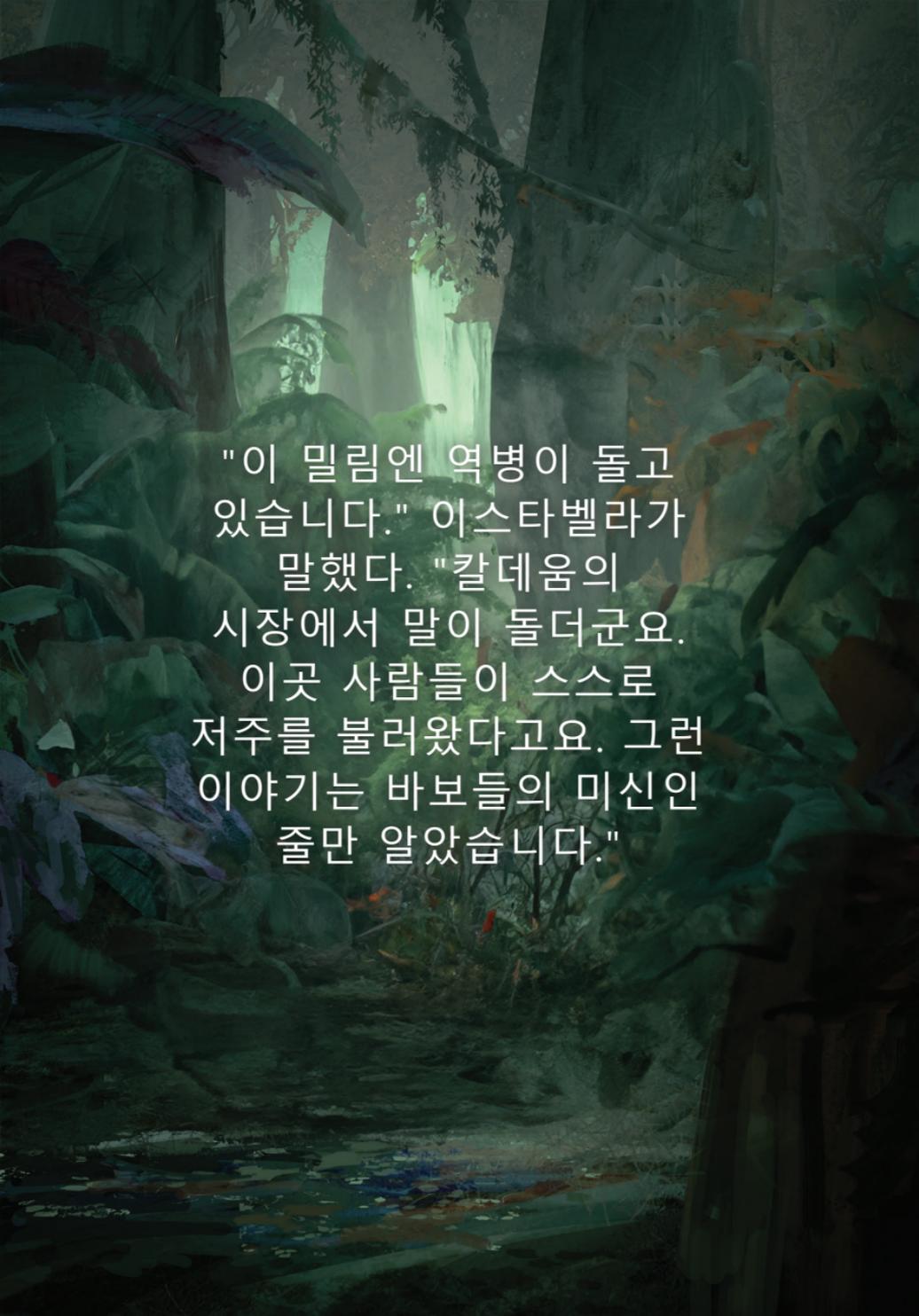
“현명하신 말이다.” 아카라트가 옥 조각상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배가 해안에 닿았고, 모두가 내렸다. 헌신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을 때 소택지 깊은 곳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은 채였다. 숨을 막히게 하는 독기가 시야를 가리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이 새어들어 심장을 조였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폭압적인 무게에 기력은 시들었다. 밀림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걸음과 용기는 진창 속에 주춤거렸다. 아카라트만이 의연히 앞으로 나아갔다. 헌신자들은 그의 자취를 따르려 하였으나 발을 맞추지는 못했다.

아카라트는 그들의 몸부림을 보았다. 그들의 떨림을 보았다. 아카라트가 멈추기를 청했다. 아카라트는 썩어가는 통나무 위에 앉아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헌신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마을의 치유사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카라트가 물었다.

헌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함께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옳다.” 아카라트가 미소를 띠고 말했다. “실력 좋은 치유사는 아니겠지, 분명. 나라면 손이 깨끗한 치유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카라트는 맨발을 더러운 진흙에 담그면서 헌신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찢어진 살을 봉합하고, 감염된 상처를 닦아내고, 열이 나고 병에 시달리는 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사는 감염된 부위를 건드려야 하는 법이다. 이 땅에 어떤 악이 도사리고



"이 밀림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타벨라가
말했다. "칼데움의
시장에서 말이 돌더군요.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왔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바보들의 미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세베테의 부친께서 나누신 지혜를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아카라트는 앞뒤로 발을 옮기며, 아이처럼 웃으면서 짹짹 소리가 나도록 발을 진흙탕에 담갔다. “성역의 흙에 발을 담글 때마다, 나는 그 안에 깃든 빛을 느낀다. 이 버려진 곳에서조차 성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다. 느껴 보아라.”

“신발은 신고 있어도 됩니까?” 아다빈이 묻자 다른 이들이 애정 어리게 웃었다.

“그래도 좋다.” 아카라트는 미소를 지었다. “신발이 빛을 막진 않는다. 빛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깃들어 있으니.”

그러자 헌신자들은 정신과 마음을 다스렸다. 내면의 빛에 닿은 그들은 그 광채로 나한투의 내부에 깃든 빛 또한 보았다. 헌신자들은 그것이 강과 강물처럼 팔팔 흐르려는 것을 보았지만, 빛이 원래대로 흐르기에는 타락으로 구속되고 죄여 저주를 받고 있었다.

“보이느냐?” 아카라트가 헌신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스타벨라, 아다빈, 굴라가 말했다.

이세베테만이 이렇게 답했다. “저는 다르게 느낍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빛은 다릅니다. 깊은 바다의 수면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카라트가 고덕었다. “자네의 부친께서 나한투 출신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친처럼. 나도 같은 기분이 드니 말이다. 아직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다. 많은 질문에 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오라.”

그리하매 아카라트는 일행을 밀림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길을 찾으려 했지만, 탐욕스러운 덩굴과 시시각각 변하는 지대에 어떤 길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발견한 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늪으로 빠지거나, 뻑뻑이 자라 뚫을 수 없는 덤불에 삼켜져, 일행은 온 길을 되짚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다.

아다빈이 좌절해 투덜거리며 말했다. “후일 도착할 여행자들을 위해 지도를 만들고 말겠습니다.”

“네 실력은 뛰어나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그러나 완성하기도 전에 시시각각 변하는 땅을 그린 지도가 낡은 것이 될까 두렵구나.”

짐승들이 주위를 흐르는 물을 지나 살금살금 움직이고 쉼쉼거리며

꿈틀거렸다. 넓게 퍼지는 물결이나 수면의 포말 아래 무언가 거대한 것이 갑자기 물을 튀기는 것 말고는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목덜미와 얼굴에서 파리떼가 물어뜯으며 피를 빨았다. 거대 거미의 거미줄은 머리 위 나뭇가지 사이에 뻗어 있었다. 멀리서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사냥감의 비명을 덮었다. 이 땅이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고, 나아가는 것은 고되었다. 헌신자들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는 악의 존재를 느꼈으나, 빛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나한투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낮이 밀림 우듬지 아래에서 일찍 죽어갔고, 밤은 빠르게 어둠으로 낮의 시체를 완전히 덮었다. 헌신자들은 이토록 짙은 어둠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다. 온통 그림자뿐이었다. 트인 곳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행은 슬슬 정착지나 마을을 찾길 바랐다. 이사벨라의 횡볼 덕에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으나, 끔찍한 쥐 떼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통에 멀리 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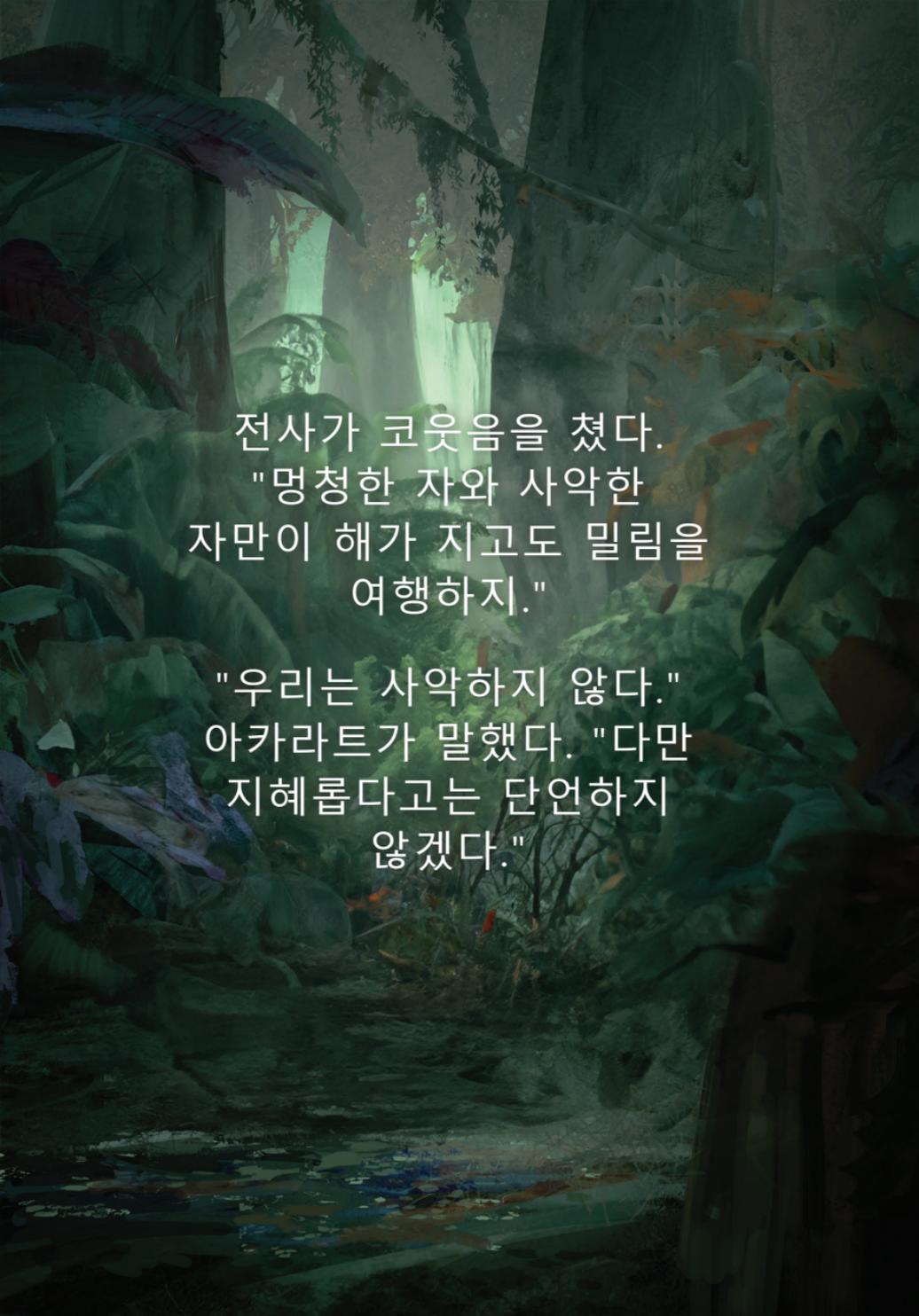
개만큼이나 큰 짐승들이 나무에서 쏟아져 나와, 몽뚝한 주둥이에서 침을 흘리며 짹짹거렸다.

쥐들의 발톱과 이빨 앞에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아카라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물러나라!”

그의 기백은 참으로 강대하고 빛으로 가득하였으니, 야수들은 돌진을 멈추고 혼란에 빠졌다. 허나 겁은 먹지 않았고, 공격을 멈출 기미도 없어 보였다. 짧은 순간을 틈타 헌신자들은 무장할 수 있었다.

아다빈은 당시 활을 가지고 다녔다. 이스타벨라는 아카라트를 만나기 전 도둑이었을 때처럼 숨기고 다니던 단검을 여전히 선호했다. 귀라는 집안의 마법사들에게서 몇 세대 동안이나 내려온 지팡이로 싸웠다. 이세베테는 추가 태양 모양인 금빛 철퇴를 휘둘렀다. 아카라트는 빛과 플람베르주를 사용했다. 쥐들이 용기를 되찾고 다시 공격하였을 때, 사냥감이었던 것들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된 것을 보았다. 아다빈은 화살을 제대로 겨누었다. 이스타벨라는 단검을 찌르고 베었으며, 귀라와 이세베테는 적을 후려치고 난타했다. 아카라트는 눈부시게 빛났다. 헌신자들은 잘 싸웠으나, 쥐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곧 압도당할 것처럼 보였다.

강대한 움바루 전사가 전투에 뛰어든 것은 바로 이때였다. 많은 짐승이 전사의 창 아래 빠르게 목숨을 잃었다. 피에 굶주린 무리는 약해지고 공세도

A dark, atmospheric illustration of a forest path. The scene is dimly lit, with a soft, glowing light source in the distance, possibly a waterfall or a cave entrance, casting a pale greenish-yellow glow. The path is narrow and appears to be made of dirt or stone, leading into the dense forest. The trees are tall and slender, with some large, broad leaves in the foreground. The overall mood is mysterious and slightly ominous.

전사가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자와 사악한
자만이 해가 지고도 밀림을
여행하지."

"우리는 사악하지 않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다만
지혜롭다고는 단언하지
않겠다."

주춤하는 듯했다. 아직 달아날 수 있는 쥐들은 어둠 속으로 물러갔다.

헌신자들이 움바루 전사의 도움에 감사하기도 전, 낯선 이는 창끝을 아카라트에게로 돌렸다. “넌 뭐냐?” 그가 물었다.

헌신자들은 스승을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아카라트가 침착한 눈빛으로 그들을 저지했다. 그러더니 그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빈손을 들여 보였다. “나는 아카라트라고 한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여행자일 뿐이다.”

전사가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자와 사악한 자만이 해가 지고도 밀림을 여행하지.”

“우리는 사악하지 않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다만 지혜롭다고는 단언하지 않겠다.”

“더러운 물에 젖은 맨발을 보니 잘 알겠군.” 전사가 말했다.

아카라트는 웃었다. “그대는? 그대도 우리와 함께 이 밀림에 있지 않은가? 확실히 사악해 보이지는 않는군. 멍청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이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자 만족한 듯했다. 전사가 창을 거두었다. “동생을 찾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오늘 돌아오기로 했는데, 흔적도 소식도 없어서 말이지.”

“동생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이세베테가 말했다.

전사가 놀라움과 의심을 담고 이세베테를 바라보았다. “낯선 이가 낯선 이를 찾는 걸 왜 돕겠다는 거지?”

이세베테가 답했다. “우리도 그쪽에게 낯선 이 아닌가. 그럼에도 전투에서 우리를 도왔잖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법이지.”

“맞군.” 남자가 말했다. “진심이라면 감사히 도움을 받지. 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더욱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많고, 죽음의 냄새를 맡고 찾아올 거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날이 밝으면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름이 무엇인가?”

“투세가다.” 남자가 답했고, 눈앞에 벌인 참상을 둘러보았다. “불쌍한 짐승들을 죽이게 되다니 슬프군. 옛이야기에 따르면, 전에는 오직 낙엽과 풀만을 먹었다고 한다. 수줍음이 많았고 혼은 평화로웠지. 악마의 씨 때문에 미친 것이 쥐들 잘못은 아니다.”

“무슨 악마의 씨?” 굴라가 물었다.

“이곳에 들끓는 증오의 역병은 나한투에서 온 것이 아니다.” 투세가가 말했다.

“그대 말이 맞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갑자기 찾아든 걱정에서 젖은 채였다. 그의 강대한 마지막 적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 타락은 증오로 가득하다.”

아카라트를 가장 잘 알아 기분을 읽을 수 있던 이세베테가 물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내가 짊어질 일은 아니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이후 투세가는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을 그의 마을로 이끌었다. 알고 보니 투세가는 치유사이자 우두머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던 자였다. 투세가는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약과 물약의 재료가 되는 온갖 약초와 뿌리, 꽃봉오리로 가득한 곳이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 같군.” 이세베테가 말했다.

“내가 만드는 비약은 치유에서 작은 부분일 뿐이다.” 투세가가 답했다.

“큰 부분은 무엇이길래?” 이세베테가 물었다.

“혼이다.” 투세가가 답했다. “혼이 꺾이면 내 치료도 거의 통하지 않아.”

투세가의 말에 아카라트는 흡족해했다. 빛이 그를 이끌어 투세가를 만나게 했다고 아카라트는 믿었지만, 투세가가 빛이 그를 아카라트에게 이끌었다는 것을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투세가의 동생을 찾아 밀림으로 향했다. 헌신자들은 투세가의 눈을 통해 나한투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투세가는 가장 마른 길을 찾아 걷는 법을 가르쳤다. 부주의한 여행자가 가라앉아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진흙 늪을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 식물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다. 공격하려는 짐승의 소리를 들어 짐승을 피해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한투의 본래 모습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그토록 많은 이가 이곳을 버렸는데도 머무르는 까닭이 무엇이지?” 굴라가 물었다.

투세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내가 머무르는 까닭은 아직 이 땅의 혼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혼령은 악마의 씨보다 강하다.”

“나도 느껴진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나한투 밀림에 들어서자마자 고향에

온 것 같더군. 찾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걸 찾은 기분이었지.”

“주인님, 혼령이 무엇인지요?” 아다빈이 물었다.

“나도 모른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안다.”

“혼령이 빛과 같은 것인가요?” 귤라가 물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다만 빛이 혼령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웠다.”

외딴 농가에 도착할 때까지 일행은 계속해서 투세가의 동생을 찾았다. 투세가는 그곳에 사는 이들이 동생을 보았는지 묻고 싶어했다. 그는 곧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살고 있던 이들이 얼마 전에 살해당했던 것이다. 훼손된 시신은 구름처럼 모여든 파리 떼 아래 쌓여 있었다. 피가 땅을 흠뻑 적셨다. 갈가리 찢긴 아이의 살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스타벨라는 흐느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슬픔과 공포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투세가는 시신 사이에서 동생을 찾았다. 눈은 도려져 있었고, 코와 귀는 얼굴에서 뜯겨나갔다. 그러나 투세가는 동생을 목에 아직 차고 있던 구슬 목걸이로 알아보았다.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은 투세가가 유해를 장작더미에 태워 불길 속에 망자가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수습하는 것을 도왔다.

“그대의 상실과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투세가.” 아카라트가 말했다.

곧이어 이스타벨라가 말했다. “우리 잘못이야. 우릴 돕는 대신 여기 왔다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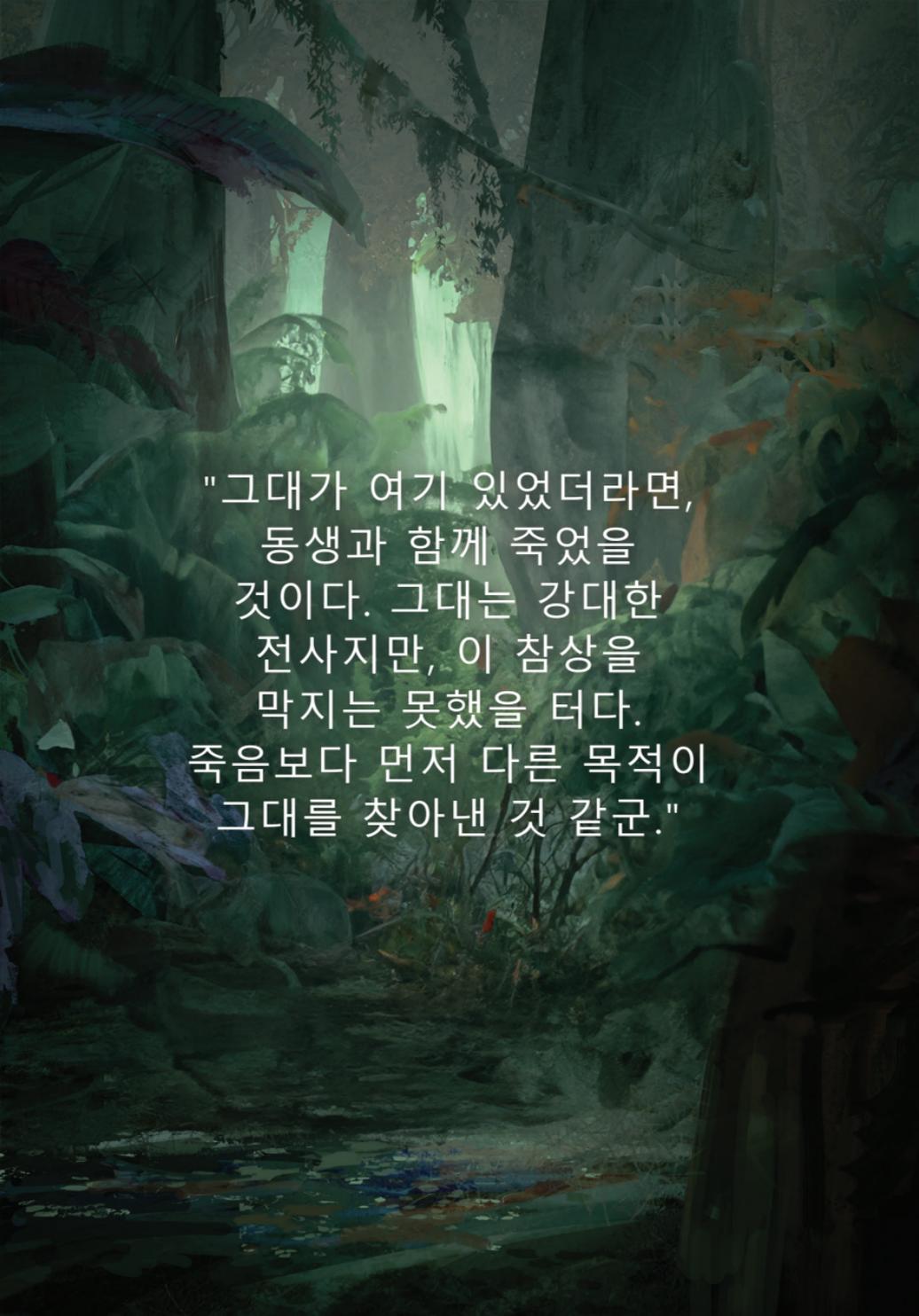
투세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을 찾은 게 내 동생이었더라도,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동생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후회 없이.”

귤라의 분노가 망자를 위해 타올랐다. “이곳 사람들이 빛의 힘으로 싸웠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카라트가 귤라를 진정시켰다. “빛도 모든 괴로움과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 그것은 빛의 힘이 아니야.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빛을 추구하지 않아.” 이어 그가 투세가에게 말했다. “그대가 여기 있었더라면, 동생과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대는 강대한 전사지만, 이 참상을 막지는 못했을 터다. 죽음보다 먼저 다른 목적이 그대를 찾아낸 것 같군.”

“무슨 목적?” 투세가가 물었다.

“우리는 나한투를 뒤덮은 타락을 정화하러 왔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그대가 여기 있었더라면,
동생과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대는 강대한
전사지만, 이 참상을
막지는 못했을 터다.
죽음보다 먼저 다른 목적이
그대를 찾아낸 것 같군."

“그대가 우릴 도와 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군.”

“어떻게?” 투세가가 물었다. “너는 누구이길래 이 악에 맞서느냐?”

“나는 아무도 아니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그리하여 아카라트는 투세가에게 빛에 대해 가르쳤다. 그리고 투세가에게 나한투에 타락을 퍼뜨린 악마의 씨를 하나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은 증오의 씨앗에서 꿈틀거리며 퍼져나가는 뿌리에 빛을 비추었다. 거기에 갇든 강대한 악도 그들의 힘을 이겨내진 못했다. 뿌리는 시들었고, 씨앗은 사라졌다. 이를 본 투세가는 아카라트의 다섯 번째 헌신자가 되었고, 이후 밀림을 지나 아카라트와 다른 이들을 증오의 씨앗으로 이끌었다. 함께 많은 위험을 마주했고, 끔찍한 시련에서 살아남았으며, 끝도 없는 고난을 견뎌냈으나, 이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윽고 나한투의 일부 지역은 빛과,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의 노고로 치유되기 시작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이 칼데움까지 달았고, 마침내 상인들은 부와 밀림의 재화를 바라며 오랜 세월 만에 처음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의 고귀하고 잘 배운 자제가 교역을 위해 나한투로 온 것도 이때였다. 나한투에 온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서였다. 이미 계획된 삶의 의무를 굳게 따르겠노라 결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제는 다정한 마음씨와 호기심 많은 정신, 희망찬 영혼을 갖고 있었고, 아카라트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빛에 걸음이 이끌리고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나?” 아카라트가 물었다.

“후알린입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빛의 힘으로, 아카라트는 후알린을 꿰뚫어 보았다. “우리에 갇힌 수리 같구나.” 아카라트가 말했다. “하늘을 훨훨 날고 있어야 할 몸이, 날개조차 펼치지 못하다니. 풀려나기를 바라느냐?”

아카라트의 진실된 말이 후알린을 충격에 빠트렸다. 후알린은 울며 말했다. “저조차 저를 모르는데, 어찌 모르는 이에 대해 이리도 잘 아십니까?”

“빛 속에서는 누구든 알 수 있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저를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후알린이 물었다.

“그럴 수 없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너는 죄수이지만, 동시에 간수이기도 하다.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너인데, 내가 어찌 너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후알린이 물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아카라트가 답했다. “답은 네 안에 있다.” 아카라트는 젊은이의 눈 위에 손을 두었다. 그 어둠 속에서 후알린은 처음 빛을 발견하고 세상을 새로이 보았다.

그렇게 후알린은 속세의 시장을 뒤로하고 아카라트의 여섯 번째이자 가장 어린 헌신자가 되었다. 후알린은 다른 이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헌신하여 나한투를 치유했다. 마침내 나한투의 물이 다시 한번 녹색과 푸른색으로 흐르고,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의 맛이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할 때까지, 동물들이 정해진 서식지로 돌아올 때까지. 바람과 비는 악의의 악취를 씻어냈고, 생명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향기가 새의 노래처럼 공기 중에 다시금 울렸다.

매일 저녁 투세가는 문간에 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어느 밤 그가 말했다. “내가 옛이야기에 의심을 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묘사한 땅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으려 애썼던 나날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선조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이야기 속의 나한투는 우리의 나한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에서 보았던 나한투가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카라트는 투세가의 말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보이지 않는 적수가 그를 쫓는 것처럼. 거대한 악은 그리 쉽게 쳐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카라트는 그의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나한투는 소중한 곳이다.” 그가 헌신자들에게 말했다. “내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직 우리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나한투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역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다. 허나 위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에 헌신자들은 의심에 빠졌다. 빛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귤라가 말했다. “저는 케지스탄의 사막 출신입니다. 나한투가 저를 인정할까요? 제 가문은 이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니 말입니다.”

아카라트가 답했다. “가족은 피가 이어진 것 그 이상이다. 집은 그저 온기를 얻는 곳이 아니며,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가족이 될 수 있고, 가족을 만드는 곳도 집이 될 수 있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귤라. 그리고 나는 나한투 출신이다.”

그러자 이스타벨라가 물었다. “저희가 아직 밝혀내지 않은 비밀이

무엇인지요?”

“나한투는 비밀을 숨기고 있지 않다.” 아카라트가 답했다. “진리는 아직 불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숨겨져 있을 뿐이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다, 이스타벨라. 진리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때 아다빈이 물었다. “주인님, 저희 자취를 지도로 그리고 있었습니까. 아직 남쪽 먼 곳의 지역은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쫓는 진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카라트가 답했다. “네 아름다운 지도도, 네가 이미 참되다 믿는 것의 단순한 기록일 뿐이다. 새로운 진리를 그곳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빛이 모든 진리를 드러낼 것이니.”

그러자 투세가가 말했다. “저는 당신께서 오기 전에는 힘이 없어 나한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지요. 이제 와서 이 땅이 절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카라트가 답했다. “가장 작은 촛불도 태양과 같은 불꽃으로 만들어진다. 가장 사소한 친절도 제일 위대한 희생과 같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빛은 빛이다, 투세가. 그리고 네 안의 빛이 너를 가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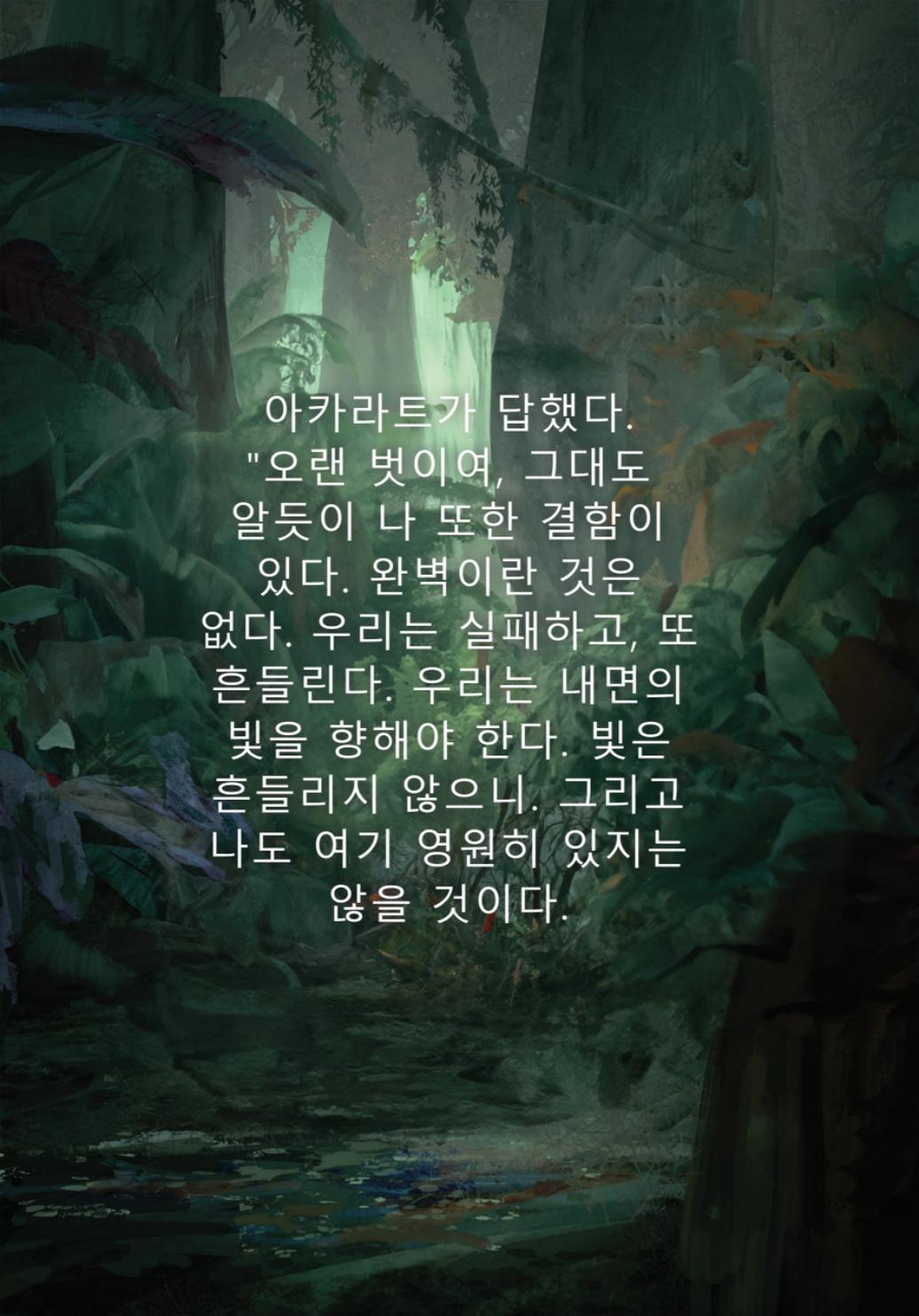
이어 후알린이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하십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빛 속의 한낱 아이일 따름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카라트가 답했다. “숲에 도토리 두 알이 떨어졌다. 하나는 해가 잘 드는 냇가에 떨어졌다. 쉽게 뿌리를 내려 한껏 물을 마시고 자랐다. 두 번째 도토리는 늪은 나무들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단단한 땅에 떨어졌다. 물을 마시려면 뿌리를 깊게 뺏어야 했다. 햇빛을 받으려면 열심히 가지를 뺏어야 했고, 하루는 거친 바람과 우박이 휘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가 불어닥쳤다. 말해 보아라, 후알린. 어떤 나무가 폭풍을 더 잘 버텨냈느냐?”

“두 번째 나무입니다.” 후알린이 말했다.

“정확히 그러하다.” 아카라트가 말했다. “어려움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강해진다. 너는 첫 번째 도토리처럼 삶을 시작했으나, 두 번째 도토리의 삶을 택했다. 네 힘을 아직 모른다고 해서 네가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자 이세베테가 아카라트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아카라트가 답했다.
"오랜 벗이여, 그대도
알듯이 나 또한 결함이
있다. 완벽이란 것은
없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흔들린다. 우리는 내면의
빛을 향해야 한다. 빛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리고
나도 여기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당신 안에 가치 있게 태어날 것입니다.”

아카라트가 답했다. “오랜 벗이여, 그대도 알듯이 나 또한 결함이 있다. 완벽이란 것은 없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흔들린다. 우리는 내면의 빛을 향해야 한다. 빛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리고 나도 여기 영원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이세베테. 우리 중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허나 우리 안의 빛은 죽을 수가 없도다.”

이리하여 위안을 얻고 다시 태어난 헌신자들은 아카라트와 함께했다. 여드레 동안 그들은 단식하며 내면의 빛을 들었다. 아흐레 되는 날, 그들은 강의 수원을 따르듯 샘솟는 혼령의 인도를 받아 밀림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아다빈의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열대우림의 공터에 이르렀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나한투의 선물이라 불리는 빈터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받는 선물이지. 혼령사만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무섭고,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어떤 말도 그 일을 묘사하기에 충분히 강하거나 너르지 않으니. 시도만으로도 시들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말할 수가 있다. 많은 사색과 내면의 분투 끝에, 아카라트는 육신의 영역과는 떨어진 혼령의 영역을 찾았다. 그가 나한투에 왔을 때부터 그와 함께 있었으나, 볼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아카라트는 그 경계를 처음으로 넘은 자였다.

아카라트는 혼령계에서 땅이 아닌 땅을 찾았다. 어디도 아닌 곳이지만 모든 곳이기도 한 땅을. 그는 동물과 식물, 모든 존재를 만났다. 어떤 것은 아카라트가 알았던 생물과 살아 있는 것을 닮았다. 다른 것들의 모습은 기묘했다. 익숙한 것에서 존재를 시작하였으나 지상의 형태라는 경계 밖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그것의 위험한 아름다움은 아카라트를 경외심과 혼란에 빠트렸다. 너무 멀리까지 헤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카라트는 무아지경으로 떠돌았다. 아카라트는 그곳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다시 육신의 영역에 돌아갈 수 있을지를 몰라 걱정하였으나, 빛이 돌아오는 길을 비추었다. 아카라트는 이 모든 것을 나한투의 빈터로 돌아오자마자 이야기했다. 헌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혼령계가 성역의 일부입니까?” 이스타벨라가 물었다.

아카라트는 대답하기 전 오래 숙고했다. “쌍둥이 바다가 어귀의 일부인 것처럼 혼령계도 성역의 일부인 것 같다. 육지와 바다는 긴밀히 엮여 있고, 서로를 끊임없이 건드린다. 그러나 둘은 명확히 구분된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다반이 물었다. “육신입니까, 혼령입니까? 성역입니까, 혼령계입니까?”

아카라트가 어깨를 으쓱했다. “바다가 육지를 가두느냐? 아니면 육지가 바다를 밀어내느냐? 나는 빛이 육지에서처럼 바다에서도 밝게 비춘다는 것만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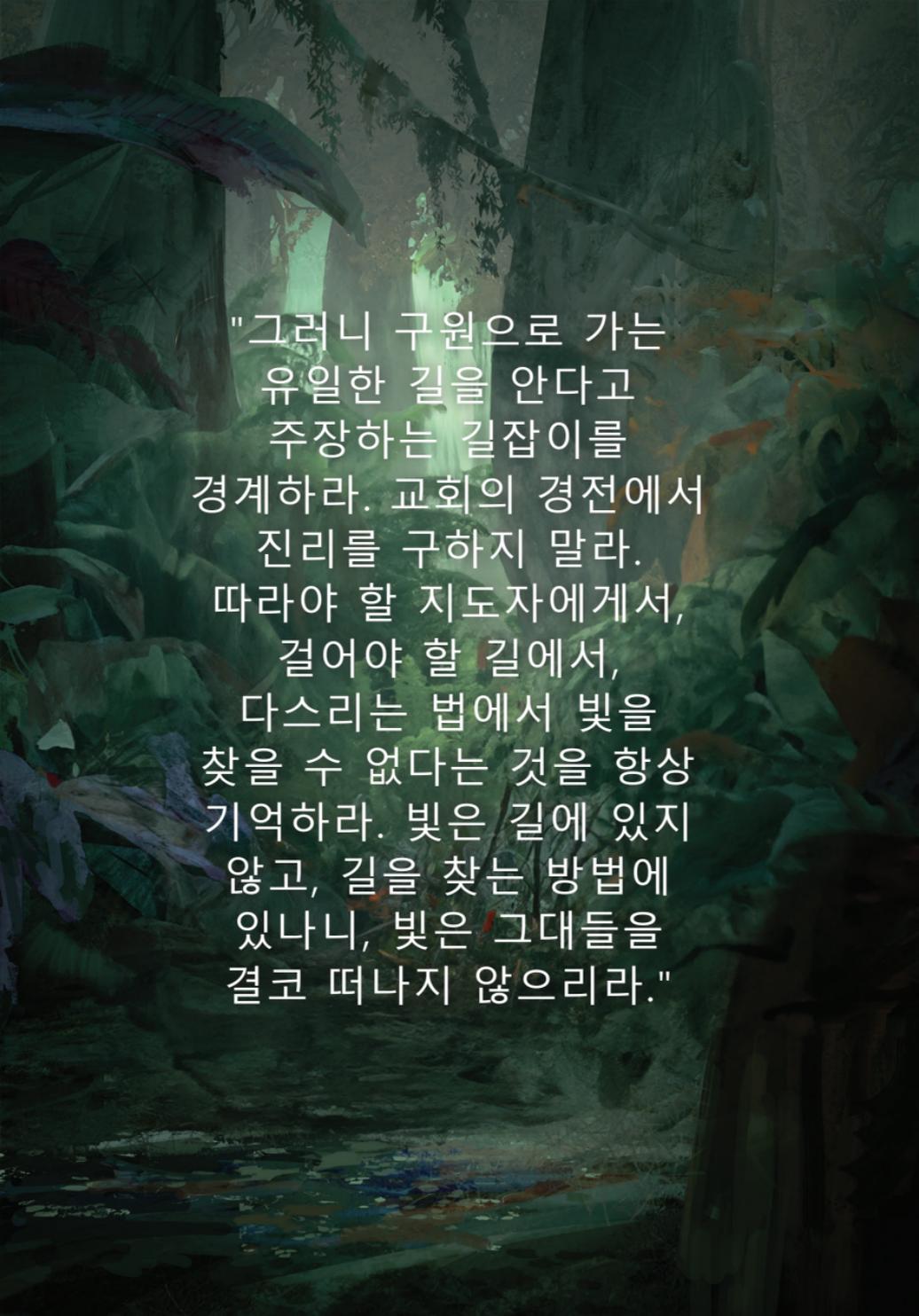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채로 우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습니까?” 투세가가 물었다.

아카라트가 답했다. “어쩌면 성역의 창조와 함께 형성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중에 나타났을지도 모르지. 그저 바다처럼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만을 안다. 거대하고 깊으며 위험이 도사리지.”

헌신자들도 혼령계에 가기를 바랐다. 아카라트가 방법을 알려주었고, 모두는 며칠을 혼령계에서 거닐었다. 혼령사의 기원은 헌신자들의 배움에 있다. 그러나 헌신자들은 발견한 것에 너무 매혹된 나머지, 어떤 악이 나한투로 다시 기어오르는지를 눈치채지 못했다. 밀림의 가장 깊은 변방에서, 증오의 씨앗이 다시 자라난 것이다.

아카라트의 첫 혼령계 여정 이후,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곤 했다. 왜 빛이 그를 그곳을 찾도록 이끌었는지. 그곳에서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며 그는 혼령계를 수호하는 강력한 존재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러한 혼령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자는 아 불란이었다. 하루는 그가 아카라트에게 와 경고했다.

아 불란은 아카라트의 어머니의 고향에 타락이 돌아왔고, 아카라트가 씨앗의 창조자를 찾아 멸하기 전까지는 증오의 씨앗이 계속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를 듣자, 아카라트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적수가 마침내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온 것만 같았다. 아카라트는 마침내 마지막 사명이 그의 앞에 놓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아 불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헌신자들에게는 계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빛의 전당을 짓도록 지시했다. 혼령계와 성역 모두에 걸쳐 선 보루이자,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며, 누구든 빛을 찾는 자라면 보호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그러니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안다고
주장하는 길잡이를
경계하라. 교회의 경전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따라야 할 지도자에게서,
걸어야 할 길에서,
다스리는 법에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빛은 길에 있지
않고, 길을 찾는 방법에
있나니, 빛은 그대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전당이 완성되기 하루 전, 아카라트는 축하를 위해 헌신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노래하고, 모든 음 하나하나를 빛이 채웠다. 그들은 춤을 추었고, 빛이 신발 바닥에서 머리에 쓴 관까지 흘렀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룬 모든 일들을 추억했다. 이윽고 아카라트가 헌신자들 앞에 섰다. 더없이 큰 사랑과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이는 그는 보석처럼 빛났고, 그는 아카라트의 고별사를 읊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 그대들 안의 빛으로, 나는 내 안의 빛을 본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들이 나와 함께이며, 내가 그대들과 함께임을 알라. 빛이 함께 엮은 것은 그 무엇도 찢어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를 분열시킬 힘이 하나 있다. 그것의 이름은 증오다. 오늘 밤 그대들이 이룬 것을 우리는 축하하지만, 악에 맞서는 그 어떤 승리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라. 그렇기에 그대들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가장 단단한 쇠에도 천천히 녹이 스다는 것을 기억하라. 증오도 이와 같이 가장 굳센 마음도 좀먹을 수 있다. 시간만 있다면, 증오는 가장 고귀한 뜻도 타락시킬 것이며, 가장 굳센 동료애도 깨트릴 것이고, 가장 진실된 길도 어둠으로 인도할 것이다. 움바루는 밀리미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칼데움의 상인들은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빨리 흔적을 지우는지 안다. 그러니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안다고 주장하는 길잡이를 경계하라. 교회의 경전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따라야 할 지도자에게서, 걸어야 할 길에서, 다스리는 법에서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빛은 길에 있지 않고, 길을 찾는 방법에 있나니, 빛은 그대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이세베테는 아카라트의 말에 불안을 느꼈다. “저희를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카라트가 그녀를 포옹하고 말했다. “우리는 필멸하며, 삶은 불확실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유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작별 인사가 마지막 고별이 될 수 있다.”

헌신자들은 아카라트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아카라트 때문에 든 모든 걱정을 무시하고서는 다시 음악과 춤을 즐기기 시작했다. 허나 오랜 벗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세베테는 그리하지 못했다. 이세베테는 그날 밤 아카라트를 계속 지켜보았고, 동이 뜨기 전 아카라트가 일어나 열대우림 속으로 홀로

들어가지, 아카라트는 그를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았다.

아카라트는 돌아온 증오의 씨앗으로 갔다. 그들이 길러낸 밀림은 다시 아카라트와 헌신자들이 처음 나한투에 왔을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먼 곳의 지옥 같은 샘에서 흘러나온 검은 유독성 담즙에 뒤뜰려 있던 것이다.

아카라트는 발걸음을 옮기며 증오의 씨앗을 없애고, 대지를 두 번째로 정화했다. 이세베테가 그를 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려면 모습을 보여야 했겠지만, 아카라트의 빛은 이세테베 없이도 충분히 강했다. 담즙에 미쳐버린 밀림의 동물들이 아카라트를 공격했을 때, 이세베테는 다시 한번 아카라트의 걸음으로 달려갈 뻔했으나, 아카라트에게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뱀이나 새이든, 강대한 고릴라든, 아카라트는 병든 생물 무엇과도 맞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빛으로 치유했다. 그리하여 어둠 속으로 그를 홀로 보내기를 원치 않는 이세베테는 모습을 숨기고 계속 그를 쫓았다. 그러나 모습을 숨기자니 이세테베는 부끄러웠다.

밀림은 깊어만 갔다. 타락은 점점 거세졌다. 이세베테가 들이마신 공기는 증오의 맛으로 혀를 태우는 것만 같았다. 그곳의 악이 가까이 느껴졌고, 이세베테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짓누르는 듯했다. 공포에 질려 거의 등을 돌릴 뻔했으나, 빛을 보며 이세베테는 힘을 얻었다. 아카라트를 따라가던 그녀는 그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한투에 저주를 내린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카라트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세베테는 그가 걱정되었다. 이토록 강대한 악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토록 강렬히 불타는 증오에 마음과 정신이 닿은 것도 처음이었다. 증오는 이세베테 주위의 타락을 뚫고 솟구쳤고, 밀림을 모두 삼켜버릴 만큼 탐욕스러웠다.

동굴 안에서 아카라트는 늑대를 만났다. 육신만 있는 늑대였다면 치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선 늑대는 흠친 육신을 갖고 있었고, 악마가 움직이고 말하는 가죽에 불과했다. 그것의 목소리는 이세베테의 뺨속까지 꿰뚫었고, 그것의 말은 이세베테의 가죽을 벗겨냈다. 그것의 괴로움에 이세베테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으나, 그 고통은 이세베테가 아카라트와 함께 설 수 없음에 따르는 아픔만큼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빛이 그녀를 말려, 아카라트의 희생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아카라트와 늑대의 전투는 땅을 흔들었다 한다. 그들의 대면에 온 나한투가 흔들렸다. 나무는 쓰러지고, 강물의 흐름은 바뀌었으며, 동물들은 우렁차게 울고 울부짖으며 비명을 내질렀다. 아카라트는 잘 싸웠으나, 상대는 죽지 않는 적이었던 반면, 아카라트는 힘의 한계를 아는 필멸자였다. 전투는 이어졌고, 아카라트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종복이기에 그러하듯 사지가 지치는 것을 느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고 적을 쓰러트리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아카라트는 그가 택한 방식으로 싸움을 끝냈다. 그는 속임수를 써 늑대가 자신을 물게 만들었다. 늑대의 굶주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늑대는 이빨을 너무 깊게 박아 넣었고, 아카라트는 달아날 수 없도록 늑대를 끌어안아 가두었다. 아카라트는 자신을 채운 빛을 해방했고, 빛은 그에게서 무자비한 광채를 내뿜으며 흘러나왔다. 태양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 그 동굴로 내려온 것처럼.

늑대는 울부짖었다. 늑대가 타올랐다. 빛은 늑대의 얼굴에서 가족을 벗겨냈고, 가족 아래 늑대의 뼈는 다 탄 장작처럼 그을렸다. 아카라트의 힘이 다하고 더는 늑대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아카라트는 늑대를 놓았다. 악마는 동굴 깊은 곳으로 달아나, 놈이 왔던 영역에 닿을 때까지 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다. 늑대는 그런 고통이 처음이었다. 그런 공포도 처음이었다. 늑대는 기억했고, 그 기억을 토양 삼아 아카라트와 나한투에 대한 증오는 자라만 갔다.

이세베테가 아카라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아카라트의 뺨에 떨어졌다. 말을 할 정도의 생명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벗을 보자 그는 기쁨에 차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 죽어서도 그 미소는 입술에 걸려 있었다.

이세베테는 그의 시신을 밀림 밖까지 옮겼다. 그 어떤 언어로 된 비가라도 현신자들의 비탄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카라트를 지키지 못했어.” 이세베테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 이스타벨라가 말했다.

“이게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후알린이 말했다. “당신이 그랬듯 저도 아카라트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더 오래 사랑하셨지만요. 아카라트의 희생을 기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그분을 실망시키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려야 할까?” 아다빈이 물었다.

귤라가 답했다. “이제 아카라트께서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사명은 우리 몫이야. 모두에게 빛의 진리와 보호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맞습니다.” 후알린이 말했다. “아카라트의 모든 가르침을 기록해야 합니다. 널리 말씀을 퍼뜨릴 수 있게요.”

이 말에 이세베테는 화가 치밀었다. “우리더러 경전을 쓰란 말이야? 지난밤 흥청망청 노느라 아카라트의 가르침도 벌써 잊어버릴 정도로 우둔해졌어? 빛의 길은 길 자체에 있지 않고, 길을 찾는 방법에 있어.”

“우리 좀 봐.” 이스타벨라가 말했다. “고작 여섯이서 어떻게 성역 모든 곳에 가르침을 전하겠어?”

그때 투세가가 입을 열었다. “나한투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는 옛이야기를 통해 무량한 시간도 지나 세대에서 세대로 안전히 전해졌다.”

“현명한 제안이십니다.” 후알린이 말했다. “아카라트의 진리와 가르침을 이야기, 우화, 예술, 노래에 담읍시다.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퍼질 겁니다.”

이세베테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었다. “빛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증오의 타락도 버틸 만큼 순수한 것은 없어.”

“맞아.” 귤라가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빛이 있도록 해야 해. 타락에 맞서 안전히 지키려면.”

이스타벨라, 아다빈, 투세가는 귤라와 후알린에게 동의했다. 그리하여 이세베테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잠시 제쳐 두었고, 헌신자들은 함께 아카라트의 시신을 수습해 상처를 닦고 옷을 입혔다. 이세베테는 아카라트의 어머니의 물건이었던 옥 조각상을 찾았다. 마지막 안식을 찾아 떠날 때 손에 질 수 있도록, 허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세베테는 조각상이 마지막 싸움 중 밀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시신을 빛의 전당에 모시자.” 이세베테가 말했다. “더럽히려는 자들에게서 안전할 거야.”

그렇게 헌신자들은 아카라트의 시신을 혼령계로 옮겼고, 그를 둘러싼 빛의 전당을 완공했다. 이스타벨라가 무덤을 지킬 교활한 계계와 보호 장치를 고안했다. 모든 것이 완성되자 헌신자들은 마지막 작별을 고했으나,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져 혼령사조차도 알 수 없다. 이세베테는 슬픔에 잠겨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낸 후, 마지막으로 떠났다. 이윽고 헌신자들은

아카라트의 안식처를 봉인했고, 아직도 그는 어떤 타락과 부패도 닿지 않는 빛의 전당 속에 누워 있다.

이렇게 아카라트가 처음 나한투에 왔을 때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나는 내 말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카라트가 원했던 일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이다. 글로 쓰인 거짓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 전쟁터가 되려면, 진리도 전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었는가? 빛의 길을 닦고는 감히 아카라트의 이름을 빌려 통행료를 걷으려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았다. 증오가 그대들을 삼키더라도, 그대들 안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으리니. 빛을 따라 돌아오라.